

고흥 봉래초, '2023 하반기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통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인식 개선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친밀한 학교 문화 조성 위해 진행

고흥 봉래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수 중앙초 나미경 교장 선생님께서 초청 '2023. 하반기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을 운영했다.

순재곤 교장 선생님의 감사인 소개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필요성 안내'와 함께 '2023.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이 시작되었다.

1차시 4학년부터 6학년 대상 다문화 교실에서는 문화 다양성 교육, 2015년 이후 학생 현황, 성씨의 변화, 문화 다양성 이해의 필요

성, 일상생활의 경험 중 백인과 아시아인의 대하는 태도 비교 영상,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삶과 문화,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였다.

2차시 병설 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 대상 교육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의 특징 소개, 세계의 다양한 인사말과 문화 알아보기, 인사말 익히기, 다문화 이해를 위한 동화 구연 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00(초6) 학생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가족 관계에 국한된 이야기만 생각했는데,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게 돼 좋았습니다"라 말했다.

최00(초3) 학생은 "각 나라의 상징과 인사말, 각 나라의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게 재밌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음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다"라고 밝혔다.

이번 '2023. 하반기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은 현재 다문화 학생이 36.8%에 이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인식 개선, 학교 현장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신월초, 독서인문주간 운영

여수신월초등학교는 <인문학과 만나는 나, 너,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셋째주부터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였다.

11월 말까지 2주간 이어진 이번 독서인문주간은, 역사 교과서와 연계한 독서 퀴즈, 폐기도서를 활용한 나만의 업사이클링 도서 만들기, '네 책방방을 보여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도서관과 함께 진행되는 아침 독서캠페인, 학부모 대상 인문학 책놀이와 교원 인문 독서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역사 독서 골든벨'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책 깊이 읽기를 통한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형식의 문제 출제를 통해 통합적인 사고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나만의 도서 만들기' 프로그램은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림책을 읽고 폐기 도서를 활용하여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시간을 갖었다. 이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책에 대한 재미있는 접근으로 독서에 흥미를 북돋을 수 있었다.

'릴레이 필사 챌린지- 읽고, 쓰고, 생각하다'

는 저·중·고학년 대상 책을 각각 선정하여 해당 학년에 맞는 도서를 순차적으로 이어서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책을 따라 씬으로써 바른 글씨 쓰기 연습과 더불어 자신이 쓴 글을 통해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아침 독서캠페인', '학부모 인문학 책놀이', '교원 인문학 독서 릴레이_불어라, 책바람'을 통해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문학의 바람을 일으켜 인문학 읽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아침 독서캠페인'의 경우 아침 등교 시간을 활용하여 책방방속에 학교도서관 책이 있는 친구에게 간식을 나눠주었는데, 10월에 진행한 1차에 비해 한 달 후인 11월에 시행한 2차에서는 책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효과를 보여주었다.

정성하 교장 선생님께서(여수신월초)은 "독서인문교육주간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을 향상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완도 신지초,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클래식 향연

채동선 실내악단 초청, 문화예술공연 개최



완도 신지초등학교는 지난 5일 신지중학교 강당에서 채동선 실내악단을 초청하여 지역 학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

서는 클래식 향연으로 시대별 작곡가의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슈베르트,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의 대표적인 음악들을 알아보고 생일 축하 바리에이션(variation: 변주곡)을 통해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이 생일이었던 5학년 양민호 학생은 생일 축하 변주곡

완도=기동취재본부

을 통해 학생들과 연주단의 축하를 받으면서 더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생일 축하 노래의 다양한 형태를 알게 되었고,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기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 착각에 더 많은 감격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1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리톤 이광일 성악가와 함께하는 '푸니쿨리 푸니쿨라(Funiculi-funicula)'를 학생들과 함께 합창하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요, 애니메이션 음악 및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연주하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연속되어 연주되는 채동선 실내악단의 연주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거나 박수를 치면서 음악회를 즐겼다.

전남교육청, 무안·영광 지역사 탐방 '남도민주평화길' 운영

'의(義) 역사' 교육자료 안내·농민운동 및 향교 문화 답사

전라남도교육청이 1~2일 남도민주평화길(전남 義)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첫날은 지역사 교육자료 설명회 시간으로 전남 의(義) 역사를 담은 교육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집필진들은 전남의 향교와 농민운동, 그리고 남도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 5권(무안, 구례, 해남, 영광, 보성)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후 분임토의를 통해 내년도 교육자료 발간 주제와 집필진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역사 집필진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집필을 통해 우리 전남 의(義) 역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슬비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